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화 중



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대선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못지않은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은 남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이롭지 못하다.

대선의 해, 차기 대통령의 자질

정치에 여성의 진출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식상해 하는 우리의 정치관을 신선하게 바꾸고 나라를 활기차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물어봐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확산되고 뿌리를 깊숙이 내

려왔다. 마치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낸 것처럼 민주화도 최단기간에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거나 하듯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와 90년대의 민주화, 2000년초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화다.

인류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의 세계를 살필 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 한국을 일궈낼 선장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 분이려면 좋겠다.

고 가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 갈 세계화 대통령이 곧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경로를 따라 대통령 후보가 정해 질 것이다. 그 경로를 쫓아가면서 선택된 후보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그 역량이 어떨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작금의 상황들은 이미 그 틀이 급격히 깨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졌는가? 누구라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겠는가?

대통령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하고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요직을 임명한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한·미 FTA, 농산물시장 '빅딜' 경계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나란도 비판도 하지 않지만 분명 한 것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방식이다. 협상시한은 오는 31일 오전 7시다.

쟁점은 수두룩하다. 쌀, 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이 미타결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이 26일부터 서울에서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발안의 진기가 주목된다.

있는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 여부다. 미국측이 막판에 쌀문제도 '예외 없는 관세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나 정치권의 분위기는 농업분야 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정황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며 압박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의 발언도 미심쩍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정부가 국외의 극대화를 내세워 농산물을 '빅딜'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수 엑스포 SOC 확충 차질 없어야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위한 여수권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세계박람회 SOC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관련 기관들은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박람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박람회 유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일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국도 17호선 여수~순천 구간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오는 2011년 개통할 수 있고, 여수권 가산단 진입도로는 오는 9월 실시 설계 후 11월 공사에 들어가 박람회 개최 전인 2012년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활주로 추가 연장은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도 전라선 신리~순천 간 복선전철 사업이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SOC 사업계획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내달 9월부터 실시되는 실사에서 실사단에 확실하게 인식을시켜줘야 한다.

정부는 SOC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2세계박람회는 여수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최하는 행사다.

법조 칼럼

류 재 규



'열자(列子)'의 탕문 편에서 유래한 '백아절현(伯牙絶絃)'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다.

도, 소송을 하게 될 법원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다.

신뢰하는 변호사 선택방법

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소송상담은 여러 곳에서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의의 인연은 계속 만들어야 한다. 패소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송이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노력을 했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기 고

우 제 길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벽화를 완성한 1512년부터 대략 1세기 전, 플랑드르 화가 안 반 아이크 형제는 유화물감을 발명했다.

감각의 흥수, 관람자는 피곤하다

하는 세대만큼이나 과격적인 것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디지털 아트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고,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매체의 발전은 이내 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옛일가, 담백한 맛이란 기본 미학에 충실한 맛을 의미한다. 미술의 기본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요구에서 출발하고 그 기본이 되는 요소는 외부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3 부정적' 폐지 논란 보다 올바른 대학교육이 먼저다

최근에 일부 보수진영과 대학들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不)정책'에 대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 불과 10년 전만 하여도 미술대학 작업실에는 오래된 이젤들이 즐비했고, 조소를 하는 학생들은 온갖 조형도구를 관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 아이크 형제의 위대한 발명의 결과가 되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미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항상 불가능한 아이디어의 범람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처럼 물리지만하다.

<화가·우제길미술관장>

영여전문 어린이집을 보내는 집이 수두룩한 반면 지방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유치원도 없어서 못보내기도 한다.

無 等 鼓

중국의 문화사학자 위추위우(余秋雨)는 "오늘날 유럽은 몇 십년 전의 외상값을 갚아버리고 마음 편히 낮잠을 즐기는 노인과 같다"고 갈파했다.

유럽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타락 현상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속물 근성과 부르주아의 탐욕, 타락이 극도에 달한 것이 19세기 유럽이었다.

유럽연합 50년



의 민족주의의 반성에서 시작됐다. 수십 개의 나라로 분할된 유럽이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전쟁은 영구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